

# 주지훈 “김혜수 선배 · 장태유 감독…안 할 이유가 없다”

###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ENA’, 오는 21일 첫 방송 변호사들 하이ENA식 생존기 그려…극 중 윤희재 역

‘하이ENA’ 주지훈이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ENA’ (극본 김주리/연출 장태유/제작 키이스트(대표 박성혜))가 오는 21일 베일을 벗는다. ‘하이ENA’는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찢는 하이ENA식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다. 김혜수와 주지훈의 전쟁 같은 케미스트리를 예고하며, 벌써부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이ENA’ 같은 변호사들이 등장할 이 드라마에서 주지훈은 엘리트 변호사 윤희재로 분해, 색지하고도 영리한 싸움꾼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총무로 쌍천만 배우로 등극, 이제는 안방극장까지

사로잡을 주지훈의 활약에 기대가 더해지는 상황. 주지훈에게 직접 ‘하이ENA’를 선택한 이유, 그가 연기할 윤희재에 대해 들어봤다.

주지훈에게 ‘하이ENA’는 어떤 매력으로 다가왔을까. 그는 “‘하이ENA’는 법정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지만, 법정에만 매여 있는 드라마는 아니다. 심각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진지하지만 무겁지만 않은 드라마라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보실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작품의 재미뿐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주지훈이 ‘하이ENA’를 주저 없이 선택한 이유였다. 주지훈은 “김혜수 선배도 계시고, 장태유 감독도 계시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해, 작품 안에서 펼쳐질 그들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다.

‘하이ENA’는 강렬한 캐릭터 드라마로서의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여타 드라마 속 변호사들과는 다른 독특한 캐릭터의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주지훈은 그가 연기할 윤희재에 대해 “극 중 설정은 엘리트 중 엘리트로 살아온 변호사계의 금수저이지만, 윤희재는 하이ENA인지 강아지인지, 강아지 중에도 소형견인지 대형견인지 단박에 정의 내릴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그런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말하며,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줄 윤희재의 모습을 예고했다.

스크린에 이어 안방극장까지, 매 작품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주지훈은 이번 ‘하이ENA’에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 주지훈은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가 보다, 저 자신도 감독님이 저의 어떤 모습을 끌어내 주시길 공금하고, 기대



가 된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윤희재는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 또 팔색조 배우 주지훈은 윤희재를 어떻게 그릴까. 21일 첫 방송.

## 장도연, 예능거인의 반전 매력 일상 ‘나 혼자 산다’서 공개

오늘 오후 11시10분 방송  
‘애완 콩나물’에 정성 쏟아  
종잡을 수 없는 감정변화도

개그우먼 장도연이 ‘나 혼자 산다’에 출격한다.

14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대세 개그우먼이자,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의 주인공인 장도연의 일상이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도연은 아침부터 ‘애완 콩나물’에게 정성을 쏟는 남다른 등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신문, 일기, 책과 함께하는 교양 가득한 취미를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신문을 펼쳐 든 그녀는 기사보다 함께 첨부된 전단지에서 시선을 빼앗기는 엉뚱함을 보여줬다.

또한 아침 식사를 하며 TV를 시청하



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변화를 겪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TV 프로그램에 빠져든 장도연은 세상 호랑탕 웃음부터 갑작스런 눈물까지 담은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찍었다고 해 과연 어떤 모습이 이어졌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장도연은 집안의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에도 나섰다. 정성스레 물건 사진을 찍던 그녀는 홈쇼핑 방송 기념으로 받았던 남성 속옷의 착용 사진을 찍기 위해 옆에 있던 ‘윌슨’에게 마수를 뺀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뉴스1

## ‘긴머리 짝둑’ 김민희…홍상수 신작 ‘도망친 여자’

남편 출장 중 과거 인연 만나는 역…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25일 공개

홍상수 감독이 연출하고 김민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도망친 여자’가 제70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오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처음 공개된다.

베를린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망친 여자’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베를린리날레 팔라스트에서 공식 상영된다. 이후에도 26일과 27일, 28일에 상영을 이어간다.

‘도망친 여자’는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 영화로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과거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감회를 따라간다.

앞서 베를린국제영화제 측은 지난 1월 29일 이 영화를 경쟁부문(Competition)에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것은 ‘밤과 낮’(2008),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2013),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에 이은 네 번째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배우 김민희는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베를린영화제를 통해서도 국내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망친 여자’의 스틸 컷도 추가 공개됐다. 공개된 스틸 컷에서 김민



희는 ‘단발 웨이브’ 헤어 스타일을 하고 감회로 인해 김새벽 및 서영화 등 홍상수 감독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배우들과 연기를 하는 중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의 신작 ‘도망친 여자’는 베를린국제영화제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이후 올봄 국내 극장가에 개봉한다. ‘도망친 여자’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7번째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주요 배우로 김민희 외에 서영화, 송선미, 김새벽, 권해효 등이 출연한다.

뉴스1

## ‘루갈’ 최진혁, 엘리트 경찰에서 강렬한 ‘인간병기 히어로’ 변신

“사이언스 액션 히어로” 장르  
내달 16일 10시50분 첫 방송

“루갈” 최진혁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담긴 스틸컷이 첫 공개됐다.

OCN 새 월화 오리지널 ‘루갈’ (극본 도현/연출 강철우) 측은 13일, 엘리트 경찰에서 인간병기 히어로로 탈바꿈하는 강기범(최진혁 분)의 첫 스틸컷을 공개했다.

‘루갈’은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로 특별한 능력을 얻은 인간병기들이 모인 특수조직 루갈이 대한민국 최대 테러집단 아르고스에 맞서 싸우는 사이언스 액션 히어로 드라마다. 잔혹한 범죄조직 아르고스에 의해 두 눈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루갈로 다시 태어난 엘리트 경찰의 복수를 그렸다.

공개된 스틸컷은 엘리트 경찰에서 ‘루갈’의 히어로로 부활한 강기범의 서사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경찰 제복을 입은 강기범은 울분에 찬 얼굴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 제약을 당한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일렁이고 있어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이어진 스틸컷 속 강기범의 180도 달라진 반전 비주얼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첨단 인공눈을 장착하고 히어로로 거듭난 강기범은 복면을 쓰고 정체를 감춰지만, 강렬한 눈빛만큼은 매섭고도 뜨거워 눈길을 끈다. 강기범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한 메카닉룸(수술실)의 풍경도 흥미롭다.

최진혁은 “저를 대본을 받았을 때, ‘사이언스 액션 히어로’라는 새로운 장르에 고민도 했지만, 감독님을 비롯한 여러 스태프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전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범은 강자에게 더욱 강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따뜻한 매력적인 인물이다. 완벽하지만 할 것 같지만 틀을 깨는 허당스러운 매력을 보여줄 때도 있다”라며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잘 표현해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루갈’은 오는 3월16일 오후 10시 50분 처음 방송된다.

뉴스1



## 양준일, ‘라디오스타’ 찾는다…19일 녹화 진행

가수 양준일이 ‘라디오스타’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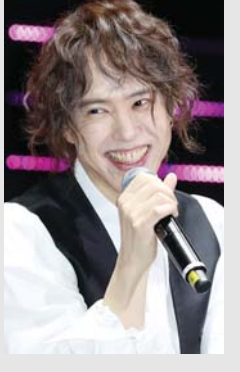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측은 13일 뉴스에 “양준일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라며 “다음 주 촬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준일은 지난해 12월6일 방송된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3’(이하 ‘슈가맨3’)의 슈가맨으로 출연한 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 데뷔 당시 90년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패션 감각과 독창적인 퍼포먼스 등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재미 교포출신으로 연예계 활동 당시 겪었던 역경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는 17일 방송되는 MBC ‘베셀수첩’에 이어 ‘라디오스타’ 출연까지 확정되는 양준일이 과연 어떤 이야기로 스튜디오를 채울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5분 방송된다.



## ‘기생충’ 해외 배급사들 즐거운 비명 “영화 달라고 아우성”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 4개 상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미국과 영국 티켓 예매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2일 미국 매체인 테드라인과 더랩 등에 따르면 미국의 영화 예매 서비스 업체 판당고의 기생충 예매율은 상을 받은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전주 대비 443%까지 치솟았다. 기생충의 미국 보급사인 내온은 이미 DVD 시장에 나온 작품이지만 미 전역의 상영관을 1061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화 티켓 판매 뿐 아니라 스트리밍 및 구매도 늘었다. 같은 날 판당고 계열사이자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및 구매 웹사이트인 판당고나우에서는 기생충의 구매와 스트리밍이 지난주에 비해 468% 증가, 1위로 상승했다.